

「2010년 하반기 에너지절약대책」 발표

# 금년 하반기 에너지절약 총력전 시작!

정부는 7월 6일 국무회의에서 「2010년 하반기 에너지절약대책」을 발표하였다. 이에 그 주요 내용을 게재한다.

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정책고

수요전망

- 빠른 경기회복과 겨울 이상저온으로 금년 에너지소비가 당초전망 4.6% 증가에서 7% 증가할 것으로 예상(7% 증가는 11년만에 처음)된다.
- 이는 2008년 11월 금융위기에서 벗어나는 경기회복에 따른 저저효과와 더불어, 금년 1/4분기 경제성장률이 8.1%를 기록하고 연간 전망도 5%에서 5.8%로 상향됨에 기인한다.
- 특히, 산업부문 에너지소비가 8.7% 증가하고, 겨울 이상저온, 이른 여름더위로 건물부문도 6.3%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.
- \* 부문별 에너지소비 증가율 전망('10년, %): 산업 8.7, 수송 1.5, 건물 6.3, 공공 4.2
- 에너지원 중에서는 금년 석유의 소비증가율이 1.8%로 둔화되는 가운데, 도시가스 및 전력수요가 가격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여 각각 10.2%, 8.7%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.

절약대책

- 이에 따라, 정부는 금년 초 설정한 에너지절약목표 4백만TOE를 5백만TOE로 상향하였다.
- \* TOE(Tonnage of Oil Equivalent): 석유 1톤을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열량
  - 이는 당초 4.6% 증가 전망인 총에너지소비를 3%로 관리하는 것을 7.0% 증가 전망인 것을 4.9%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(1.6%p 절감을 2.1%p 절감으로 강화)한다.

□ 추가절약을 위해 도입되는 새로운 에너지절약정책들은 다음과 같다.

① 온도제한

연간 에너지소비량 2천TOE 이상 건물 586개에 대해 권장 온도 26°C(판매시설 등은 25°C) 준수를 의무화했다.

- 이는 지난 6월 23일 은행, 백화점 등 에너지다소비 서비스 업종에 대한 자발적 절약의 후속조치로, 7월 중 에너지절약 실태점검을 실시하고, 그 결과에 따라 시행 될 것이다.

② 요일제 확대

운전문화 개선을 위해 서울, 경기, 대구에 시행 중인 요일제를 내년도에는 5대 광역시\*에 확대할 계획이다.

\* 현행 : 서울, 경기 대구 → 확대 : 부산, 인천, 광주, 대전, 울산 추가

③ ESCO 활성화

또한, 10년 이상 노후건물을 보유한 공공기관에 ESCO 사업을 확대하고, 10% 이상 에너지절감미 기대되는 경우 ESCO사업이 의무화된다.

④ 전력피크 분산

8월 중 피크시간(11~15시)에는 전국을 6개 그룹\*으로 구분하고, 각 그룹에서 연간 에너지소비량 2,000TOE 이상 대형 사업장, 건물의 개별냉방기를 한 시간마다 10분씩 순차 운휴하게 된다.

\* 서울·인천, 경기, 경북·대구·울산, 경남·부산, 전남·광주·전북, 충청·대전·강원·제주

- 그리고, 만일의 에너지수급 불안에 대비하여 위기단계별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, 수요제한 조치의 강제시행에 대비하여 7월 셋째 주에 "에너지절약 비상훈련\*"을 실시할 예정이다.

\* 훈련내용(안) : 발전소 정지 등 상황별 대응훈련, 병원·호텔·산업체 등의 분야별 대응훈련, 주요 건물·사업장의 권장온도 준수 등

⑤ 경제운전 장치 보급

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 장착 의무화를 위해 금년 중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하고, 2012년부터 시행된다.

\* 우선 버스, 택시 등 운수업체를 대상, 경제운전 표시장치 도입비용 일부를 지원

- 면허시험에 경제운전 문항을 확대하고, 경제운전 체험교육을 실시함

□ 이외에도 기존 부문별 대책 강화내용과 제도개선안이 추가로 마련된다.

건물부문

○ 12개 건물이 참여 중인 건물 에너지 목표관리 시범사업에 35개 건물을 추가로 선정하여 2차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.

산업부문

○ 그간 절약정책이 집중되었던 산업부문에 대해서는 경기회복을 감안하여, 규제보다는 에너지절약 지원정책이 추진될 방침이다.

- 중소기업을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에너지·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한 경우 그 실적을 대기업의 실적으로도 인정해 주는 대·중소 탄소파트너십을 시행할 계획이다.

- 약 1,300개 사업장이 참여 중인 자발적 협약은 검증된 에너지절감량에 크레딧을 발급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제도로 개편된다.

- 또한, 에너지경영시스템\*, 현장컨설팅, 검증기반 등 목표관리제 이행을 위한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할 것이다.

\* 에너지경영시스템(EMS; Energy Management System): 에너지사용 현황을 전사적으로 측정·관리하여 사용량을 최적화하는 시스템으로 미국, 덴마크 등 10개국에서 도입

- 아울러, 8개 생태산업단지\*에서 한 기업의 폐열 등 잉여에너지를 다른 기업에 제공하는 에너지순환 프로젝트를 지원할 계획이다.

\* 8개 생태산업단지: 울산, 경기, 충북, 경북, 전남, 부산, 대구, 전북

수송부문

○ 도로교통 비중이 75%라는 점을 감안하여 운전 시 에너지낭비를 줄이고, 자동차의 효율향상을 추진할 것이다.

- 경제운전 장치 인증제 등 법적·제도적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, 경제운전 체험교육, 에너지절약 운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제공될 계획이다.

- 또한, 고효율차량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최우수 연비차량이 분기별 발표되고, 경차 등 고효율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가 검토 중이다.

가정부문

○ 국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여름 전기절약 실적만큼을 겨울철 소외계층 난방비로 지원하는 “에너지빼기 사랑더하기 캠페인”의 참여를 지난해 8,700개 건물에서 12,000개로 늘리고,

- 8월 16일에 예정된 “에너지의 날”에는 전국에서 적정냉방운동 준수 및 소동행사가 열릴 계획이다.

- 또한, 국민의 흥미와 관심에 부합하도록, 실내온도와 건 강·학습과의 상관관계 등을 7월 중 TV, 지하철 방송 등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.

전력수급 안정

○ 여름철 냉방수요 분산을 위해 원격관리시스템, 축냉기기 등 부하관리기기를 보급하고, 가스냉방기기 설치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.

- 최근 보급이 급증한 EHP의 경우 건축면적 3,000㎡이상의 공공건물에 자동제어장치 설치하고, LED 등 고효율기기를 보급할 계획이다.